

차세대 모바일 웹, 모바일OK 표준화 전략



이승윤 | TTA 웹PG605 의장, ETRI 표준연구센터 서비스융합표준연구팀장,
모바일웹2.0포럼 표준기술위원회 위원장

권성인 | (주)유비즈벨리 상무이사, 모바일웹2.0포럼 표준기술위원회 부위원장

1. 머리말

최근 웹은 모바일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차세대 모바일 웹으로서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표준에 대한 인식 또한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하여, 2007년부터 본격화되었던 W3C[1] 중심의 모바일 웹 표준화 작업은 이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응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규격확장 단계에 있으며, 특히 HTML5[2] 등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모바일 웹(Web) 표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폭발적인 스마트폰 응용 활용과 함께 네이티브 앱(Native Application)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비즈니스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이미 포화상태

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들은 개발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이 바로 모바일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며, 모바일 웹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표준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표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모바일 웹 표준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모바일OK'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바일 웹 표준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관에서 모바일OK 표준에 기반한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등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웹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급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표준화 현황과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차세대 모바일 웹 표준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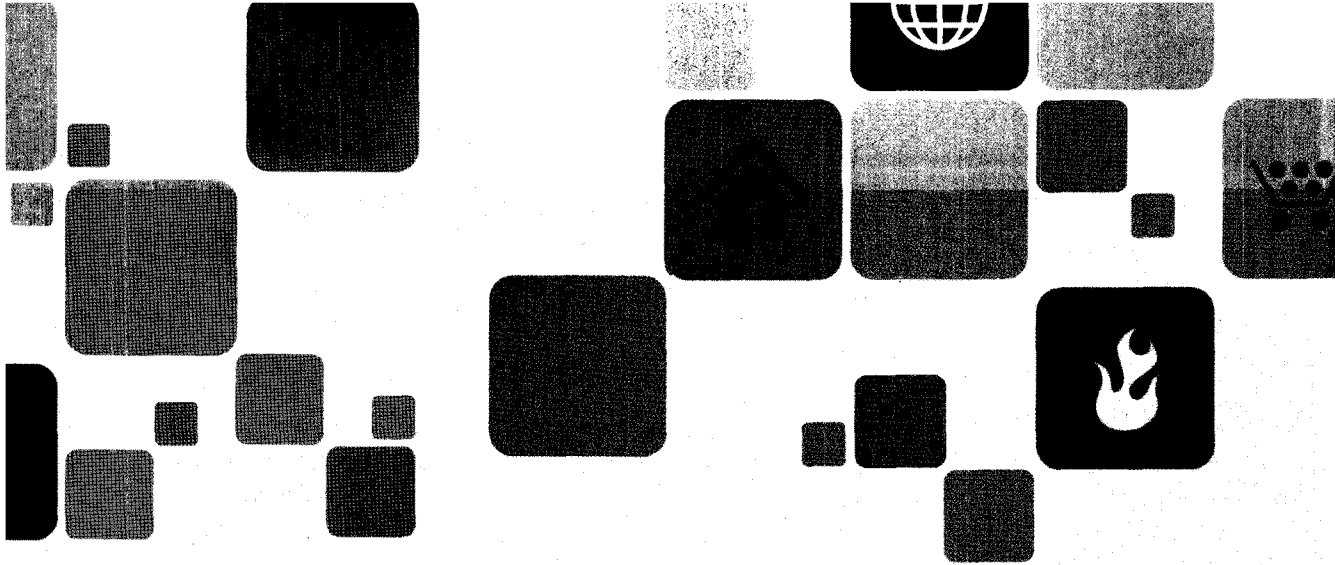
2.1 모바일 웹 표준화의 글로벌 트렌드

과거 모바일 환경에서 웹의 이용은 WAP 브라우저를 통한 저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및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도 일반 휴대폰(피쳐폰: Feature Phone)에서 계속 이용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그 활용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모바일 웹의 활용은 최근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과 같은 고성능 단말의 출현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했으며, 2007년 국내에서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모바일 웹 기반 서비스 기술이 개발 보급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양의 단말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완벽한 풀 브라우징 서비스 제공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 사항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모바일 단말이 지닌 하드웨어 사양의 상이함으로부터 오는 일관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다. 즉, 기존의 웹 브라우징 방식으로는 매우 다양한 화면 크기를 갖는 모바일 단말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과거 WAP 방식의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각 단말에 맞도록 여러 개의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 왔으며, 최

근에도 각각의 스마트폰 플랫폼 및 대표 단말 기종 별로 별도의 모바일 웹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복 개발문제를 해결하고 단말에 최적화된 방식의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W3C에서 추진해왔던 Mobile OK 표준[3]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스마트폰 단말에 탑재된 각종 장치 및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따른 제약이다. 웹 애플리케이션, 즉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GPS 등 각종 센서, 주소록, 일정, 카메라 제어, 배터리 정보, 갤러리 및 파일 시스템 등과 같은 단말의 자원에 접근, 제어할 수 없기에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웹이 아닌 별도의 설치형 프로그램인 네이티브(Native)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종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바스크립트 API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HTML에서 이러한 디바이스들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크업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HTML5 규격 및 Device API[4]를 위한 관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복수의 플랫폼과 다양한 규격의 하드웨어 단말 등에 대한 개별 대응과 이에 따른 중복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웹 표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바일 웹은 단순한 브라우징 서비스를 넘어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무선 융복합 서비스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W3C Mobile OK 표준도 초기 모바일 웹 콘텐츠 브라우징을 위한 모범사례 표준에서 모바일 응용 서비스를 위한 모범사례 표준으로 확장하는 등 보다 진보된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 표준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웹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과 연계한 응용 서비스로 발전하는 등 점차 앱 방식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발전하고 있다.

2.2 국내 공공분야 모바일 웹 수요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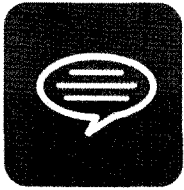
현재 정부에서는 포스트 전자정부 전략으로 '스마트 코리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바일 포털 구축 등 'm-정부' 구현[5]을 위해 전자정부 모바일 포털, 노동부 워크넷 등 44개 정부 사업의 모바일 기반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U-서비스 촉진, 스마트오피스 확산을 통한 원격 근무 환경조성,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기존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 공기업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민원, 공공 서비스 영역의 업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표준 기반 모바일 웹 중심의 서비스 개발보다는 네이티브 앱 중심의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고객 접근성 보장 및 대국민 편의성 측면보다는 전시행정 측면의 사업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단순 정보 전달용의 네이티브 앱 서비스를 개발 배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관해 행정안전부는 2010년 6월에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 정부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단말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 때 국제 웹 표준 및 국내 '모바일OK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0년 7월에 모바일 응용 개발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 발표[6]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모바일 웹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7]에서 규정한 ‘모바일 웹 방식 제공 의무화’와 ‘웹 표준 준수 요건’에 의해 모바일OK 표준 기반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모바일 웹 표준의 중요성

최근 발표된 삼성SDS 선정 ‘2011년 8대 IT 메가트렌드’ [8]에 따르면, “다양한 PC용 운영체제(OS)와 이 OS들에 맞춰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점차 소멸하고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이브리드 웹’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인터넷 웹과 스마트폰 앱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웹이 미래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HTML5 등 차세대 웹 표준이

어도비 플래시 같이 웹을 장악했던 기존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RIA)을 대체하고, 웹 기반 OS · 웹 기반 앱스토어가 등장하면서 웹이 점차 앱과 유사해질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닌 순수 웹 기술을 통해 기존의 모든 기술들을 대체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며,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웹 기반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OS 및 플랫폼별 별도 개발과 최적화가 필요없이 하나의 표준 기반 웹을 통해 모든 환경의 사용자 접근성을 보장하며, 개발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웹(Web as a Platform)’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바일 웹에서의 표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며, ‘Mobile OK’라는 표준이 이미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Mobile OK 표준은 모바일 웹 기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표준 기술로서 모바일 환경에서 웹 표준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모바일 단말에 최적화된 웹 브라우저 서비스 제공을 위한 W3C 국제표준의 총칭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국제표준화와 연계한 본격적인 모바일OK 표준개발을 수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모바일OK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바일 웹 표준 보급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모바일 웹 표준 기술의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응용 제공을 위한 API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 웹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며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 때문에 써드파티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던 다양한 플러그인 기술(액티브X, 플래시 등)에 의존하지 않고 웹 표준 기술만으로 모든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9]

4. Mobile OK 표준화 및 보급 현황

모바일 웹 콘텐츠 표준화의 역사는 1997년 설립된 WAP포럼(현 OMA)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2년 WAP2.0이 표준화 되었지만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유선 웹 콘텐츠 서비스 수요 증가를 제대로 수용하기에는 유선 웹과의 호환성 이슈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결국 보급에 한계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W3C는 2005년에 MWI(Mobile Web Initiative) Activity[10]를 신설하고 3개의 워킹 그룹을 통하여 본격적인 모바일 웹 표준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W3C BPWG이 가장 핵심이 되는 워킹그룹으로서 모바일 웹 모범사례(MWBP: Mobile Web Best

Practice) 표준을 기본으로 모바일 웹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표준을 개발했다. BPWG에서는 Mobile Web Best Practices 1.0 표준 개발에 이어서 Mobile Web Application Best Practices 표준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다. 기존 Best Practice 1.0이 브라우징 중심의 표준이라면 Application Best Practice는 모바일 단말에서의 다양한 모바일 웹 응용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모바일 단말에서 다양하게 제공될 모바일 웹 응용들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으로 조만간 W3C 권고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W3C에서의 모바일 웹 관련 표준화는 이제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Web Application WG, HTML WG, DAP WG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W3C가 지향하는 모바일을 위한 One Web[11]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1 국내 모바일 웹 표준화 현황

국내의 모바일 웹 표준화는 TTA PG605(웹 프로젝트 그룹)[12]와 모바일웹 2.0포럼[13]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바일OK가 그 대표적인 표준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모바일OK 표준화의 경우, 2007~2008년 동안 W3C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모바일 웹 콘텐츠 중심의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약 20여종의 국내표준(TTA 단체표준)을 만들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웹 응용 서비스 중심의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1>은 국내 모바일 웹 표준화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국내 모바일 웹 표준화 로드맵

단계	추진 전략
1단계 (2007)	모바일 콘텐츠 및 브라우징 호환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OK 기본 표준 개발
2단계 (2008)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특성에 종속되지 않는 정치독립적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OK 확장 표준 및 응용 표준 개발
3단계 (2009)	유무선 네트워크 및 단말에 제약 없는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OK 애플리케이션 표준 개발
4단계 (2010)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 웹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 웹 응용서비스 표준 개발
5단계 (2011~)	다양한 분야로의 모바일 웹 적용 확산에 따른 신규 요구사항 기반 차세대 모바일 웹 응용서비스 표준 개발 (e-book, 스마트TV 적용 등)

*출처: ET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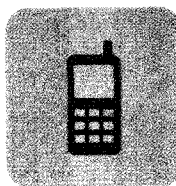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현재 총 22건의 표준이 개발되어 TTA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었고, 이 중 일부 규격은 올해 9월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9년 11월 아이폰 출시로부터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모바일 웹 수요 급증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비 표준 기반 서비스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표준 마련이 시급했으며,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모바일 웹 도입시 공인된 표준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웹 2.0포럼에서는 모바일OK 콘텐츠 표준 이외에도, 모바일OK 애플리케이션 표준화, Device API, 위젯 표준화, 전자상거래 및 banking 기술 등에 대한 확장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WAC와 같은 글로벌엑스토어(일명 슈퍼엑스토어) 표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이동통신사 중심의 표준화 노력도 시작되는 등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모바일OK 표준 적용 및 보급현황

모바일 웹 표준화를 위한 모바일OK 표준의 제정 및 국가표준 등록 추진, 전자정부 호환성 지침 등 정부 정책을 통한 표준 준수 권고, 그리고 각종 홍보 활동 및 모바일OK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모바일 웹 표준화 인식이 상당부분 제고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일부 정부 공공기관에서의 모바일 웹 개발 사업 요건에 표준준수가 명기되어 실제 모바일 OK 표준 준수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출처: <http://m.seoul.go.kr>

[그림 1] 모바일OK 표준 기반 '서울시청 모바일 웹 서비스' 사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웹 전환지원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OK 표준 준수를 일정부분 강제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도 표준준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모바일OK 시범사업을 통해서 표준에 대한 검증과 모바일 웹 표준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모바일 웹 준수 가이드라인으로 모바일OK를 지원하고, 또한 2010년도에 발주된 서울시청, 국토해양부, 대전시청 등의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모바일OK 표준 준수 요건이 명기되는 등, 향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보급이 대폭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14].

4.3 모바일OK 시범사업 현황

모바일OK 시범사업은 모바일 웹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도 3차 시범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모바일웹2.0포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표준의 효용성 검증 및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의 장점 발굴과 표준의 개선 내용 도출을 통한 '모바일OK 표준 기술 응용', 다양한 모바일 웹 개발 도구(SDK) 배포, 기술정보 제공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환경 구축', 표준기반의 서비스 인프라 및 선행 기술 개발을 통한 '모바일 웹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개방형 유무선통합 모바일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국내 모바일 산업활성화 유도 및 개방형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환경을 통한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eco system)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모바일OK 표준 기반 서비스 개발의 지원과 모범사례 구축을 통한 표준 준수 활성화와 지속적인 모바일 웹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 및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제공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차세대 모바일 웹 표준화 대응 전략

과거 무선 인터넷 시장은 폐쇄적 시장 운영과 더불어, 특히 비 표준화된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환경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되었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모바일 웹 중심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요구 사항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표준 기반의 서비스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최근 전 세계 모바일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HTML5 등의 확장 표준의 등장으로 인해 웹은 보다 강력한 응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모바일 환경 변화 추세는 다양한 단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서비스 환경을 지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모바일 웹 기반으로 진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바일 웹 표준의 핵심은 유무선 환경 구분 없이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서비스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표준을 유선과 동일하게 규격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웹 표준을 100% 준수하면서 모바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작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 표준과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서로 다른 모바일 단말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웹 표준 기반의 단말정보 기술 및 교환 기술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단순 웹 콘텐츠 이용

에 대한 호환성을 넘어서 응용 및 서비스 차원의 심리직한 서비스 연동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른 모바일 웹 응용 관련 표준 개발이 필요로 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스마트폰을 넘어 e-book, 스마트모바일TV 등 다양한 단말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웹 응용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기술 수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차세대 모바일 웹 표준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모바일 웹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은 향후 국내 모바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모바일 응용, 서비스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웹 기반 차세대 모바일



Mobile Web

서비스 기술 및 표준화 선도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W3C 등 표준화 단체와 구글, 애플, MS 등 해외 주요 기업은 미래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웹 기반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기술 및 표준화 선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모바일 웹 표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웹 표준 기반의 선 순환적 모바일 응용 및 서비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차세대 모바일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표준화 인프라 확보를 통한 글로벌 모바일 시대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로 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 확산되고 있는 차세대 모바일 웹 표준화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웹의 확산은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웹 기술 역

시 모바일OK 표준, HTML5 표준 등과 함께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통해 서비스 융복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 진정한 플랫폼 기술로서 IT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는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모바일 웹 표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단순 브라우저를 넘어 모바일에서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상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기능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모바일 웹 표준 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웹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전략 역시 새로운 미래 서비스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기존 스마트폰을 넘어 e-book, 스마트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표준화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미래 지향적 모바일 웹 표준 기반의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환

경을 보급·확산시킴으로써 기존 모바일 서비스 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산업 활성화 유도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http://www.w3.org>
 [2] HTML5, <http://www.w3.org/TR/html5/>
 [3] W3C MobileOK, <http://www.w3.org/TR/mobileOK-basic10-tests/>
 [4] W3C Device API, <http://www.w3.org/2009/dap/>
 [5] 행정안전부, 모바일(Mobile) 확산에 따른 전자정부 (M-Gov) 정책방향 (2010.6.29)
 [6]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제공지침 (2010.7.1)
 [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 고시 (2010.6.24)
 [8] 삼성 SDS 선정 2011년 IT 메가 트렌드 (2010.10.20)
 [9] 이승윤, 정해원, '차세대 모바일 웹 플랫폼 표준화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3호, 2010. 6
 [10] W3C Mobile Web Initiative(MWI), <http://www.w3.org/Mobile/>

[11] W3C - One Web: Going Mobile, <http://www.w3.org/2006/Talks/1106-sb-OneWeb-Mobile2/>
 [12] TTA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http://committee.tta.or.kr/>
 [13] 모바일웹2.0포럼, <http://www.mobileok.kr/>
 [14] 권성인, '모바일 웹 표준 규격(모바일OK 표준) 소개', 2010 **TTA**

